새 정부, 불교 전통서 공존 가치 배우길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장미대선으로 불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는 막 발걸음을 떼고 역사의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는 최근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혐오와 대결을 지양하고, 공존과 화해 그리고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는 다짐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년의 시간동안 경제적으로도, 정치·사회적으로도 숨 가쁜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는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버려도 되는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과 경쟁을 부추기는 극단적 갈등을 극복하려 한다면, 함께 공존하는 통합의 사회를 성취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유형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고, 불교는 그 중에서도 우리 역사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진행형의 살아있는 문화'이다.

많은 문화유산이 말 그대로 유산(遺産) 곧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하지만 불교는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존과 화

'잘사니즘' 내세운 李 대통령
'함께 잘사는 세상' 기치 내포
불교 '不二' 정신 되새겨 봐야

해 그리고 소통의 가치를 추구해 온 불교 본연의 정신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불교문화는 전통적 가치와 미래의 가치적 변화를 동시에 품고 있다.

새 정부가 막 시작되는 지금, 한국불교의 불교적 사유와 불교문화 전통이 가진 가치를 굳이 강조하는 까닭이 있다. 함께 하고 서로 배려하며 그래서 공존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일구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며 경쟁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돌아보면 그 이유는 자명하다. 화해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얻는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내세웠다. 나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 십분, 백분 공감되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 공감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남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나만큼이나 남도 소중하다'는 생명존중의 가치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불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고, 또 여전히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와는 다른, 타자에 대한 존중'이 소중함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효·의상·균여·지눌·무학·휴정·만해 스님 등 우리네 선지식들이 그러했다.

우리 역사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불교의 선각자들은 늘 '나와 남의 공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흐름으로 새겨졌다.

막 출발하는 새 정부의 지향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새 정부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마다,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왔던 전통의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린 왜 '환수유산박물관'을 만들었나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5월 24일 오전 10시, 이순신 장군 묘소가 있는 충남 아산 음봉면에서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 앞서 박물관 개관에 노력한 인사들이 모여 고유제를 봉행했다.

"16개국 21곳의 문화 의병이 결집하여 존귀한 역사를 품고 미래세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고유제 제문 중)

문화유산회복재단은 고구려 수막새, 9세기 신라 여래불상, 고려 문신 경휘의 묘지, 우암 송시열의 송자대전 목판, 조선시대 문수보살도 등 그동안 외국에서 환수한 문화유산 200여 점과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경남의 산서집, 1800년대 인구조사 자료인 경북 봉화의 호적단자,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피해 자료 등 1000여 점을 소개하는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을 5월 24일 개관했다.

박물관은 △환수유산전시실 △한국 문화유산이 소개된 외국 소장기관 도록 도서실 △정규홍 자료실 △국외문화유산 홍보실 △국제협력관 △특별전시실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 환수한 문화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박물관을 설립한 이유는 외국에 있는 문화유산의 환수에 있어 소장기관(인)이 믿고 기증·기탁할 공간의 필요성과 가치 활용 때문이다. 실제로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 중에 민간 소장이 많이 있으나, 과거와 달리 소장인의 세대교체 과

5월 24일 아산서 '환수유산博' 개관
소장자가 믿을 만한 기탁처 역할
환수유산 활용한 청소년 교육 실시

정에서 유물이 헛되이 취급되어 버려지거나 은닉,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미국 등 몇몇 동포 소장가의 사망으로 환수 협의를 진행하던 중요 유물이 흩어지고 추적이 불가하게 된 사례는 박물관 설립을 빠르게 진행하게 한 계기가 됐다.

또한 가치 활용에 있어 청소년 교육은 세대적 연결과 가치 확산에 중요한 요소이다. 공유와 공감을 위해 구경 위주의 기존 박물관과 달리 환수기념박물관은 오감으로 실감하고 체험함으로 이해를 돕고 감수성을 높이고자 구성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교실로 찾아가는 문화유산 실감교육'을 실시했고 그 만족도가 90%가 넘었다. 하지만 교실 수업의 한계로 '더 많이, 더 오래,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 이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같은 박물관'으로 꾸몄다. 박물관에는 전통놀이인 윷놀이, 사방치기 등 다양한 놀거리도 마련됐다.

박물관의 또 다른 특징은 전시대, 책장, 책상 등을 친환경 종이 소재인 허니콤으로 제작했다는 점이다. 그림 등의 전시에 있어서도 가볍고 변형이 용이한 허니콤은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은 '국제적인 활동'을 목표로 한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 가입 전 세계 피해 문화유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저개발국가의 환수를 지원하고자 한다. 축적한 환수 활동의 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유·확장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장이자 활동 공간으로서 '첫 사례'가 바로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이다.

社 說

이재명 대통령, 이젠 불교 공약 실천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당선 직후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 달라"고 축하와 당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불교 정책 공약을 어느 후보들보다 빠르고 디테일하게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 완화 △재난 대비 주변 정비 사업 지원 △전통사찰 규제 개선 △연등회 전승관 건립 △문화유산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 완화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교류사업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의 근간에는 불교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며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약(公約)은 후보자가 국민에게 실행할 정책에 대한 약속이다. 공적인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정치인들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대통령의 불교 공약이 헛된 약속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을 위한 범불교적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대선기간 중 주요 종단과의 간담회에서 "지속적 협의"와 "정례적 교류"를 약속했다. 이에 대한 이행은 이제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자비실천 30년, 시대 보듬는 복지 펼치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창립 당시 21곳에 불과했던 산하 복지시설은 현재 181곳으로 늘었고, 종사자는 5600명, 이용자는 200만 명, 예산 규모는 4000억원에 이른다. 활동 영역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노숙인, 국제구호 등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와 대학생 점심 식사 지원 프로그램 '청년 밥심' 등 시대 흐름에 맞춘 색다른 사업을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6월 11일 열리는 창립 30주년 기념 대법회에서는 지난 30년 간의 역사를 조명하는 〈30년사(史)〉와 복지법인 현황을 정리한 〈불교사회복지편람〉을 선보인다. 불교사회복지 아카데미 구성 등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할 사업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30년은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다. 그동안 재단은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숙을 이뤄냈다. 이제는 다음 30년을 준비할 때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등 복합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복지의 개념도 진화해야 한다. 재단은 그간의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사업 운영을 넘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 불교의 전통과 현대 사회의 필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복지 모델의 중심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이 가닿길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염원이 복지재단을 통해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 서경보 존자 29주기 다례재 봉행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6월 4일 서울 일붕선원에서 종정 대륜 스님과 총무원장 혜일 스님, 재단 이사장 경원 스님, 명예이사장 일명 스님, 종회의장 도정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일붕 서경보 존자 열반 2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6월 11일

재)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5하계수련회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종도 스님들의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2025년도 하계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사암의 발전과 스님들의 법체 강녕을 기원하며,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13일(금)
- 장 소 : 보현정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솔목길 15-5)
- 담 당 : 지화 스님 (010-3525-7190)
- 회 비 : 15만원
- 준비물 : 가사 · 장삼, 개인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등
- 문 의 : 성혜 스님 (010-8082-9503)

불기 2569년(2025) 6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6월 1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